

## 나의 목적지는 길이 끝나는 곳 너머에 있다

김 영 백

중앙대

정년이 바로 앞에 다가 오니까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었습니다. 강의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이미지는 무지개였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 뒷산에서 정신없이 뛰어놀다가 머리 위에서 앞에 있는 산으로 내려오던 아름다운 거대한 무지개 커튼을 발견하고 헐떡거리며 따라 올라가면, 어느새 그보다 더 앞의 언덕에 있는 커다란 소나무 위로 올라가버리고, 또 따라서 달려가고, 나중에는 비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두근거리는 아름다운 색들의 기억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던 소년의 모습이 생생하게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코 잊지 못할 어릴 적의 기억을 시인은 감동스러운 한 줄의 시로 남기고, 우주 물리학자는 지구로부터 별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측정하는 도구로 발전시킵니다. 칼 마르크스도 자본론에서 유물론에 대한 변증법을 설명하면서 무지개의 원리를 이용하였다 합니다. 저는 이러한 꿈이 아마도 의사의 길로 인도하였고, 척추를 전공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학문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오래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지내면서 배우고 느꼈던 것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착하다” 라는 의미가 조용하고 말을 잘 듣는, 하지만 융통성이 부족한 조금은 싱거운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현재 통용되는 이러한 의미가 그 당시의 저를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격 덕분에 사회에 공헌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모님과 학교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 의과대학까지 큰 어려움 없이 마치게 되었는데, 한 가지 문제는 제 앞에 항상 특출한, 성적이 좋을 뿐 아니라 잘 놀기까지 하는, 이상한 친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던 저의 착한(?) 성격 덕분에 질투나 시기 없이 오히려 같이 어울려 친하게 지냈습니다. 정신없이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신경외과 의사로서 사회에 나오니까 좋은 일도 많았지만, 좀 더 심각한 일들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제 앞에 뛰어난 친구들이 한 두 명이 아니고 떼거리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학회에서 능란한 발표와 풍부한 임상 경험을 보여주던, 특히 처음 참석하였던 외국 학회에서 뛰어난 발표를 접하고 받았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다행히 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이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가끔 뛰어난 동료들을 보면서 왜 나는 그들과 나란히 맨 앞에 설 수는 없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고 이 때문에 잠시 우울하기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노력을 한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분명 편해진

다, 그리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통해서 저 자신을 격려할 수 있었고 계속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외과라는 과목은 결코 편하거나 여유가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가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쉬지 않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질적인 향상이 계속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직접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일들에서 문득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와 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인으로서가 아닌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타인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평소에는 미처 알지 못하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같이 너무 늦게 깨닫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부족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던 옛 선인의 말씀이 다시 떠오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